

2025. 11. 13.(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11월 13일 오전 10: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2쪽

도시관리과장

신동권

2133-8370

도시관리정책팀장

이현정

2133-8372

서울도시공간포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http://urban.seoul.go.kr>
(<https://commission.esoul.go.kr/>)

제18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 금일 위원회 상정 안건 : 총 7건

- 원안가결 : 2건
- 수정가결 : 4건
- 조건부가결 : 1건

※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불임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개최결과 1부. 끝.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 2025.11.12. (수) 14:00 】

■ 총 7건 (심의 7건)

연번	안건명	개요	개최결과	비고
1	<심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한국종합무역센터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 위치 : 강남구 삼성동 159 일대(161,784.5㎡) ○ 내용 :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안) 심의 -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 - 한국종합무역센터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	수정가결	<동남권사업과> 총괄계획팀 팀장 : 노승원 담당 : 채현이(은중) (2133-8254/8258)
2	<심의>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위치 : 마포구 상암동 509-7 일원(1,690,171.6㎡) ○ 내용 :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심의 - DMC 택지개발지구 내 미래각 교육첨단용지 지정용도 변경	원안가결	<산업입지과> 산업입지정책팀 팀장 : 박지은 담당 : 박광수 (2133-8465)
3	<심의> 왕십리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변경), 성동구 행당동 293-11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 위치 : 성동구 행당동 293-11 일대(4,994㎡) ○ 내용 :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심의 - 왕십리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218,000㎡ → 213,006㎡) - 행당동 293-11 일원 역세권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용도지역 변경 :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수정가결	<도시공간전략과> 복합개발전략팀 팀장 : 공경배 담당 : 송영기 (2133-4656)
4	<심의> 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거여동 26-1번지) 결정(변경)	○ 위치 :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920.5㎡) ○ 내용 : 매입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거여지구 내 거여동 29-1번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심의 - 상한용적률 항목 중첩에 따른 기반시설 충분여부	조건부 가결	<도시관리과> 도시관리지원팀 팀장 : 배현경 담당 : 장은교 (2133-8384)
5	<심의>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및 역삼동 676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 위치 : 강남구 역삼동 676번지 일대(18,489.7㎡) ○ 내용 : 르네상스 호텔 재정비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심의 - 지정용도 내 주석에 명기된 객실 비율 변경 (관광숙박시설의 객실 비율 84.2%이상→80%이상)	원안가결	<도시관리과> 도시관리지원팀 팀장 : 배현경 담당 : 장은교 (2133-8384)
6	<심의>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 위치 : 용산구 한강로 일대(3,467,822.2㎡) ○ 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심의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 특별계획구역 신설 9개소, 해제 2개소 등	수정가결	<도시관리과> 도시관리지원팀 팀장 : 배현경 담당 : 최진혁 (2133-8385)
7	<심의> 은평구청 주변 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 위치 : 은평구 녹번동 185번지 일대(184,800㎡) ○ 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심의 - 구역 변경(125,300㎡ → 184,800㎡) - 획지계획 및 공동개발 계획 변경 - 건축물 계획 변경	수정가결	<도시관리과> 도시관리운영팀 팀장 : 이종욱 담당 : 김정운 (2133-8389)

2025. 11. 13.(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11월 13일 오전 10: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균형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총괄계획팀장

노승원

02-2133-8255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4쪽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한국종합무역센터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 제18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 ☐ 서울시는 2025년 11월 12일 개최한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한국종합무역센터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 ☐ 대상지 일대는 1980년대 ‘한국종합무역기지 건설 기본계획 수립’ 이후 컨벤션센터, 도심공항터미널, 호텔, 백화점, 쇼핑몰, 공연장, 업무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서울 대표 국제교류·업무·MICE 중심지로 성장했다.
- ☐ 시는 대상지 주변으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현대차그룹이 조성 중인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등 대규모 개발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지역 여건에 부합

하는 외부공간의 재편과 기능 개선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했다고 설명했다.

- 이에 따라 현재 코엑스몰, 별마당 등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지하공간 대비 이용이 저조한 지상부는 약 1.4만 m^2 규모의 영동대로 지상 광장과 연계해 대규모 보행 중심 녹지공간으로 재편한다.
- 교통의 요충지인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연접부에는 도심 공항서비스 기능을 이전 배치해 국제교류복합지구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의 이용 편의성을 높여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자 한다.
 - 2023년 코로나19 팬데믹과 적자 누적 등으로 도심공항터미널이 폐업한 이후,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도심 공항서비스 운영 재개 요청은 계속됐다. 이에 시는 코엑스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보행환경이 양호한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인근에서 서비스를 재개하고자 한다.
- 한편, 이번 사업은 세계적인 건축가 ‘토마스 헤더윅’의 건축디자인(메인 컨셉 : 호기심 캐비닛)을 바탕으로 추진해 기대를 모은다. 조경 설계는 두바이 ‘부르즈할리파’, 미국 ‘디즈니랜드’ 등을 설계한 세계적인 조경회사 SWA Group이 맡았다. 세계적인 건축가 및 조경회사와의 협업을 통해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창의적인 건축디자인과 조경을 겸비한 서울의 대표 글로벌 명소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다.
 - 시는 영동대로 변에 위치한 테라스 및 녹화된 옥상 등을 시민들에게 개방해 다양한 경관을 조망하며 이벤트를 즐기는 도심 속 여유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 시는 “이번 한국종합무역센터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과 연계한 입체 도시공간이 조성될 것”이라면서 “국제교류복합 지구는 글로벌 업무, 상업, 문화, MICE 기능을 모두 갖춘 새로운 매력 공간으로 재탄생해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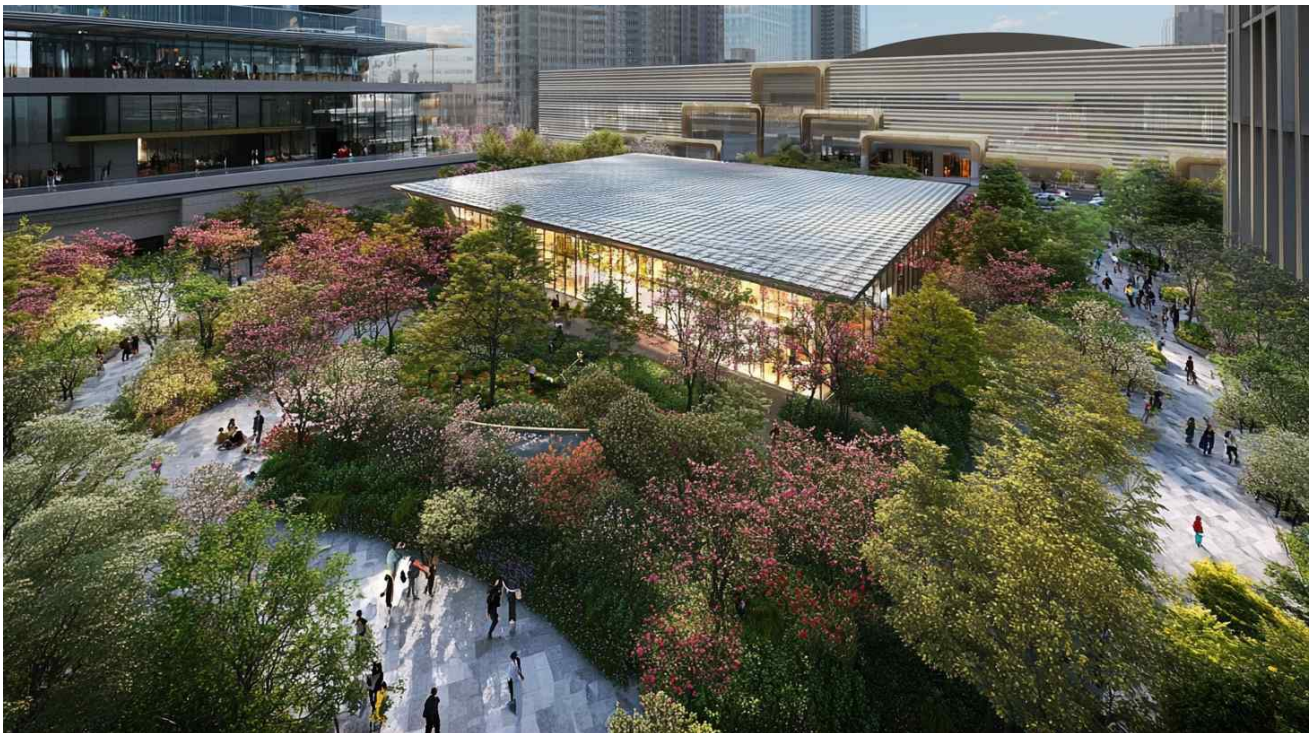
□ 조감도



< 코엑스 전면부 >



< 코엑스 통합홀 >



< 별마당 주변 >

2025. 11. 13.(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11월 13일 오전 10: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경제실 산업입지과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4쪽

산업입지과장	한 경 미	2133-8460
산업입지정책팀장	박 지 은	2133-8461

- 제18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서울시,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원안가결

- 교육·첨단 부지 지정용도 '방송국' 추가...참여 조건 완화해 용지 공급
- 홍보관 부지 불허용도 외 지정용도 폐지...민간의 창의적인 개발 유도

☐ 서울시는 12일(수)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상암 DMC 내 교육·첨단 및 홍보관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변경으로 교육·첨단 부지의 지정용도에 '방송국'을 추가해 DMC가 국내외 콘텐츠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운영이 종료된 홍보관 부지는 불필요한 용도제한을 없애 민간의 창의적 개발을 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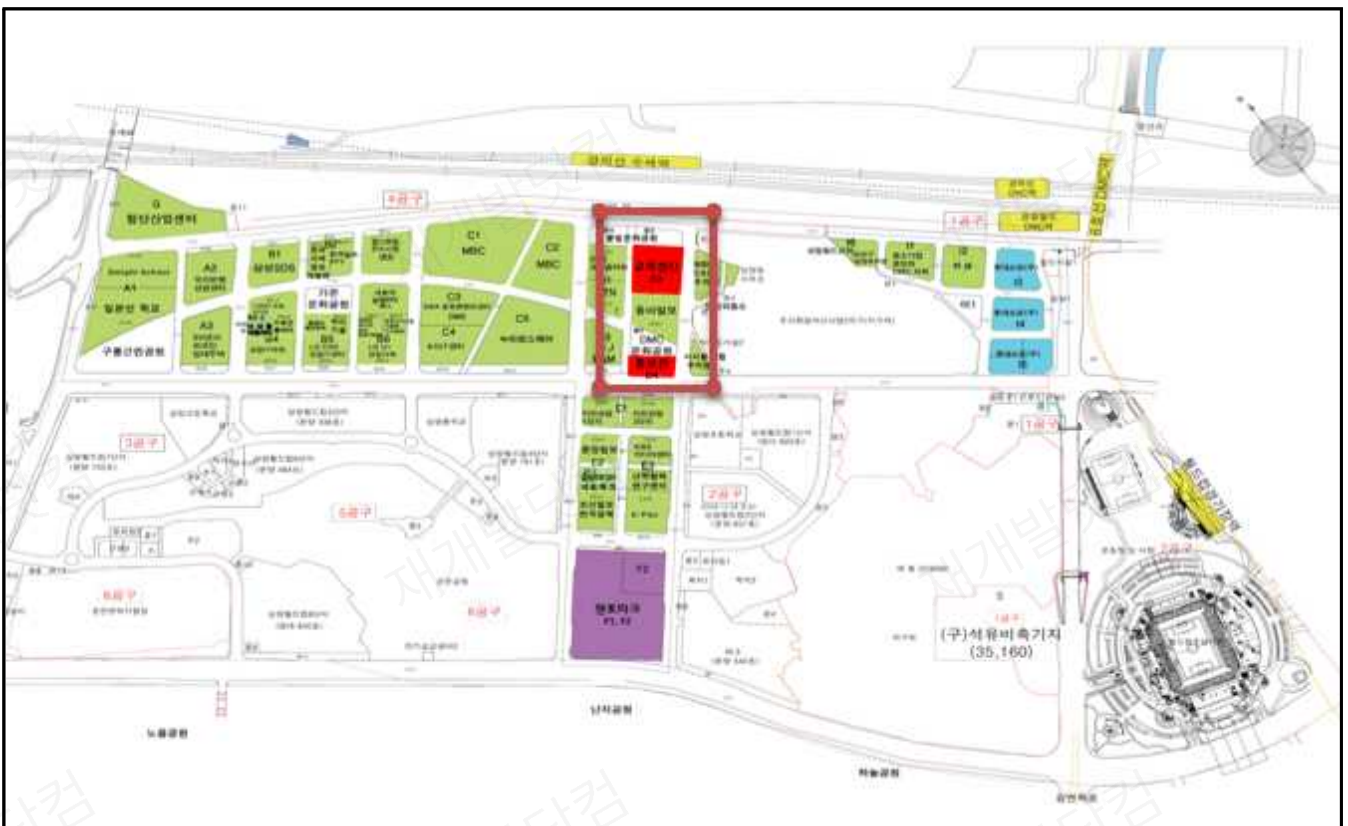
☐ 시는 이번 변경을 통해 DMC가 '창조산업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DMC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혁신 산업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편, 시는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고시한 뒤, 연내 용지 공급 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DMC 교육첨단, 홍보관 부지 위치도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내용 1부.

□ 위치도(마포구 상암동 1610-1, 1612)



□ 지구단위계획 변경내용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변경

기 존	변 경
■ D2-1(교육첨단용지)	-
1) 지정용도(연면적의 70%이상)	
- 교육연구시설 중 ‘가-다’ 및 ‘마’목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원, 직업 훈련소, 연구소)	-
- 업무시설	-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공연장), ‘라’목(전시장)	-
- 방송통신시설 중 ‘가’ 목(방송국)	조건 신설
2) 불허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골프연습장 및 안마시술소 -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
■ D4(홍보관용지)	
1) 지정용도(연면적의 70%이상)	
- 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공연장), ‘라’목(전시장) - 교육연구시설 중 ‘가-다’ 및 ‘마’목(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연구소)	지정용도 삭제
2) 불허용도	
- 위락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골프연습장 및 안마시술소 ※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으로 유해시설 불가	-

2025. 11. 13.(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11월 13일 오전 10: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전략과

도시공간전략과장

김성기

02-2133-6950

복합개발전략팀장

공경배

02-2133-4653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3쪽

성동구 행당동 293-11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왕십리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수정가결

- 제18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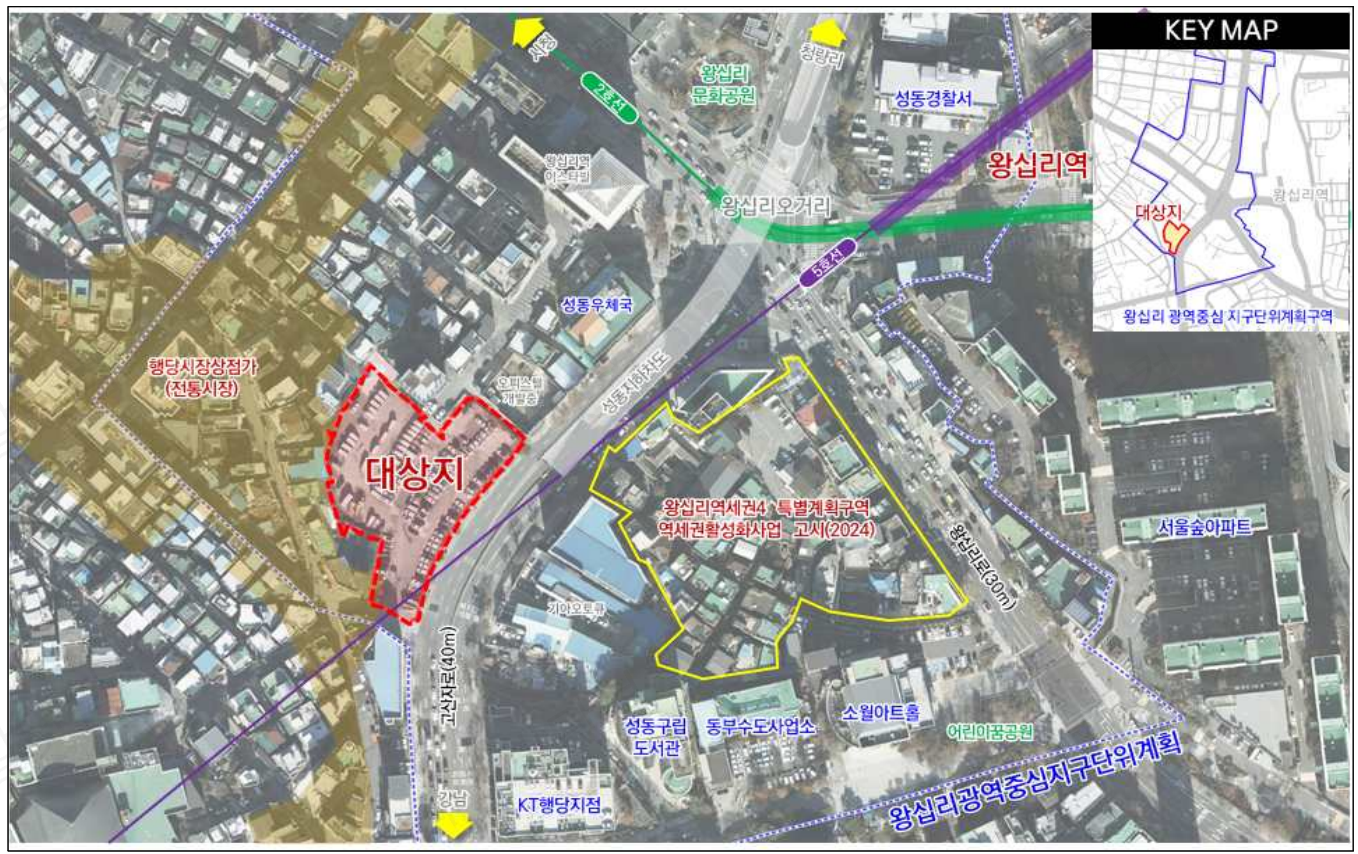
- ☐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왕십리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한 「성동구 행당동 293-11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 ☐ 대상지는 6개 노선이 교차하는 광역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고차 역세권으로 서울 동북권의 핵심 요충지인 왕십리 광역거점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에는 성동구청과 구의회, 성동경찰서 등 주요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어 공공업무 및 상업·문화 기능이 집중된 지역이다. 현재는 주차장 부지로 이용되고 있다.
- ☐ 서울시는 이러한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 왕십리 일대 비즈니스 콤플렉스와 연계한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관광숙박시설을 포함한 복합개발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왕십리 일대의 광역중심 기능을 강화하고, 도로

개설과 보행환경 개선을 병행해 시민이 머무르고 걷기 좋은 거리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 이번 결정에 따라 대상지에는 지하 8층, 지상 28층 규모의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내부에는 호텔과 컨벤션, 근린생활시설, 지역필요시설 등이 설치된다. 특히, 국제 수준의 관광숙박시설과 회의장, 컨벤션 공간이 함께 조성되어 공공업무와 상업이 어우러진 ‘마이스(MICE) 관광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이 2천만 관광도시 서울의 위상에 걸맞은 숙박 인프라 확충과 미래 관광수요 대응의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 아울러 실효됐던 도시계획도로를 이번 사업을 통해 새로 개설해 고산자로와 이면도로의 단절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것은 물론, 고산자로변에는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 등 열린 공간과 보행로를 마련하고, 상업·문화시설과 연계해 활기찬 거리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대상지는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착공,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왕십리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통해 호텔, 컨벤션, 근린생활시설, 지역필요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기능이 도입되면 왕십리 일대 생활권에 새로운 활력이 생길 것”이라며 “특히 5성급 관광숙박시설의 도입은 동북권의 경쟁력 강화와 광역중심 기능 확립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 위치도 및 조감도 각 1부.

□ 위치도 (성동구 행당동 293-11 일대)



□ 조감도



※ 상기 건축계획안은 예시안이며 향후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025. 11. 13.(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11월 13일 오전 10: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과장	신동권	2133-8370
도시관리지원팀장	배현경	2133-8383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3쪽

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조건부가결

- 거여동 26-1번지 용적률 체계 개편 및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거여역 초역세권에 SH매입임대주택(64세대) 공급 예정
-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확보로 주거 안정 및 저출생 극복 지원

☐ 서울시는 2025년 11월 12일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조건부가결” 했다.

☐ 대상지는 5호선 거여역 2번 출구에 인접한 역세권 부지로, 양호한 입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2022년 말 기존 건축물 철거 후 현재까지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토지소유주는 올해 상반기부터 신축약정 매입 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해당 부지에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미리내집’) 64세대를 공급하기로 했다.

-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전 세대 공공임대주택 설치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지하 1층, 지상 14층 규모의 매입임대주택이 새로 지어질 예정이다.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역세권에 양질의 미리내집을 공급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고, 저출생 극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향후 공공임대주택(미리내집) 건립은 관련 심의 및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6년도 착공하여 2027년도 준공될 예정이다.

□ 위치도



□ 조감도



※ 향후 관련 심의 및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25. 11. 13.(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11월 13일 오전 10: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과장	신동권	02-2133-8370
도시관리지원팀장	배현경	02-2133-8383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3쪽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및 역삼동 676번지 (르네상스호텔)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원안가결

- 관광호텔 객실비율 조정으로 관광수요에 능동적 대응 및 관광산업 활성화 유도
- 고품격 서비스 및 다양한 체험 제공하여 관광객 만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
- 일반시민 대상 '아트 컬렉션 도슨트 투어 프로그램' 운영 예정으로 문화예술 콘텐츠 제공

☐ 서울시는 2025년 11월 12일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및 역삼동 676번지(르네상스호텔)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역삼역과 선릉역 사이, 테헤란로 중심부의 센터필드 교차로 인근에 위치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이다. 해당 부지는 2021년 준공된 센터필드 WEST동 일부(지하 1~2층, 지상 3~4층, 24~36층)로, 현재 호텔로 임대 운영 중이다.

- 이번 변경은 2016년 세부개발계획 결정 당시 정해졌던 관광숙박시설 객실 설치 비율을 조정해 관광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호텔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 변경된 부대시설 공간은 최근 트렌드인 체류형·체험형 관광 수요에 맞춰, 숙박을 넘어 서울의 매력과 K-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복합 관광 콘텐츠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 또한 호텔은 강남을 대표하는 5성급 관광거점으로서, 객실 이용객뿐 아니라 일반 방문객을 대상으로 ‘아트 컬렉션 도슨트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유 미술품을 공개해 예술과 휴식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변경으로 관광수요에 맞춰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강남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세계 수준의 서비스와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위치도 및 대상지 전경 1부.

□ 위치도



□ 대상지 전경



2025. 11. 13.(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11월 13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과장

신동권

02-2133-8370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5쪽

도시관리지원팀장

배현경

02-2133-8383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6개 구역으로 재편

-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

- 서울시 최대 규모인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345만 m^2), 30년만에 6개 구역으로 분할
- 용산전자상가 일대 등 특별계획구역 신설, 특별계획구역 59→68개소로 재편
- 한강대로변 높이 완화 100m→120m+ α , 공동개발 지정 전면 해제 등 규제 완화

☐ 서울시는 2025년 11월 13일 개최한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서울역에서 한강대교까지 이어지는 한강대로 일대로, 1995년 최초 지정된 이후 약 345만 m^2 규모로 관리돼 온 서울시 기존 시가지 최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그동안 구역 규모가 지나치게 커 계획 변경과 행정 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왔으나, 이번 결정으로 6개 구역으로 재편되어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개발이 가능해진다.

□ 새로 구성된 6개 구역은 다음과 같다. ▲서울역 일대(71만 m^2) ▲남영역 일대(36만 m^2) ▲삼각지역 일대(73만 m^2) ▲한강로 동측(40만 m^2) ▲용산역 일대(105만 m^2) ▲용산전자상가(12만 m^2)

- 서울역 일대는 국제관문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남산과의 보행녹지축을 확충한다. 남영역 일대는 서울 도심과 용산을 연결하는 한강대로 중심의 업무축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삼각지역 일대는 용산공원과 맞닿은 입지와 중저층 주거지의 특성을 고려해 도시 정비를 유도하고, 한강로 동측은 용산공원과 용산新중심을 연결하는 주거·업무·녹지 복합공간으로 조성한다.
- 용산역 일대는 국제업무 기능을 중심으로 서울의 미래 성장을 이끌 ‘용산新중심’으로 조성하고, 용산전자상가 일대는 AI·ICT 등 미래 신산업의 혁신거점으로 개발한다.

□ 특별계획구역은 기존 59개소에서 68개소로 확대되며, 특히 용산전자상가 일대에는 총 11개의 특별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엔비디아 사례처럼 세계적 빅테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 용산전자상가 일대는 11개 특별계획구역 중 8개 구역이 세부개발계획 수립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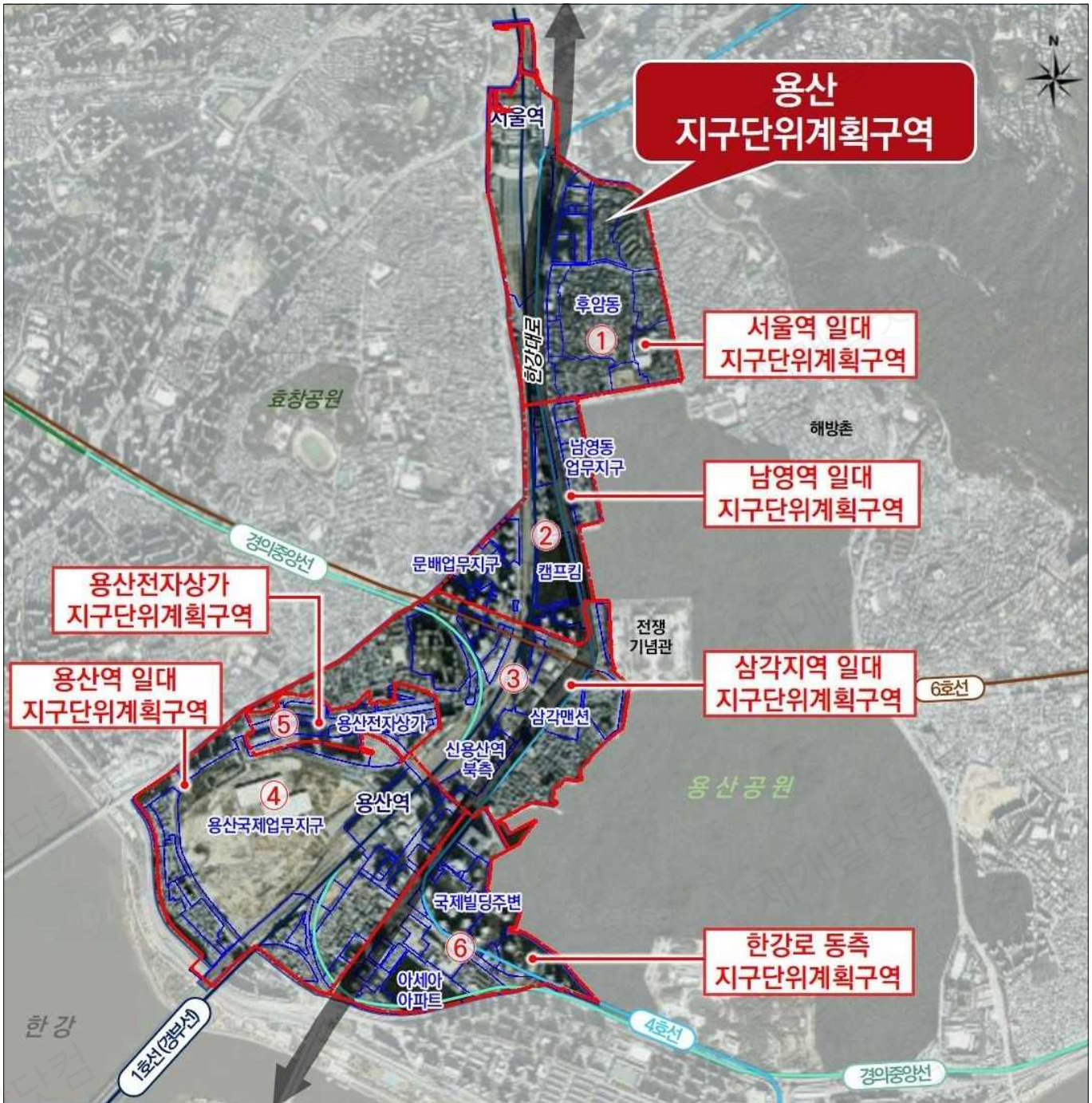
□ 한편, 용산우체국 주변 등 2개 특별계획구역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구역을 해제하고, 개별 필지 단위의 건축을 허용할 예정이다. 특히 ‘용리단길’로 활성화된 용산우체국 일대는 기존 가로조직을 보존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중·소규모 건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 또한 광화문에서 서울역과 용산을 거쳐 한강으로 이어지는 한강대로 일대는, 국가상징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 구간의 최고높이는 100m에서 120m로 완화하고, 사업계획과 지역 특성에 따라 추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민원을 초래했던 공동개발 지정계획은 전면 해제해 규제를 완화한다.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계획 결정으로 국가상징거점인 용산 광역중심 일대가 미래 신도심으로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효율적인 구역 재편으로 도시행정 절차가 더욱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위치도 및 조감도 각 1부. 끝.

□ 위치도



□ 조감도



※ 용산전자상가 일대 계획(안)을 중심으로 한 조감도이며, 실제 개발시 이와 다를 수 있음

2025. 11. 13.(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11월 13일 오전 10: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3쪽

도시관리과장	신동권	02-2133-8370
도시관리운영팀장	이종욱	02-2133-8387

은평구청 주변 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 높이 및 최대개발규모 완화 등으로 지역 개발 활성화 도모
- 보행공간 확보 등 역세권 일대 보행환경의 질 개선
- 역세권 일대 저층부 상가 도입으로 지역 상업기능 강화

☐ 서울시는 2025년 11월 12일 개최한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은평구청 주변 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은평구청을 중심으로 세무서, 문화예술회관 등 다수의 공공시설이 입지해 있고, 주변으로 응암1, 응암2, 녹번1 등의 주택재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배후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은평로, 서오릉로 간선변의 상업기능 강화와 개발 여건을 마련하고자 금번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였다.

-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은 자율적 개발유도를 위한 획지계획 및 공동개발 지정 축소, 녹번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 높이 계획 완화, 쌈지형 공지 신설을 통한 보행여건 개선 등이다.
-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규제적 성격의 요소는 최소한으로 하고, 개발 여건 마련과 지역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은평구청 주변 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이 은평로와 녹번역 일대 생활권을 더욱 활기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위치도 1부.

□ 위치도

